국제기구 · 수출신용기관

◈ 미주개발은행(IDB), 2001년 중 79억 달러의 승인실적 기록

미주개발은행(IDB)의 2001년 중 승인실적이 전년 대비 49.1%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. 지원실적의 대폭 증가는 IDB가 2001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자금지원 기법인 'New Flexible Lending Instruments'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된다.

동 여신기법은 중남미의 경제발전과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새로운 개발 및 연구사업에 지원되는 Innovation Loans을 포함하여 모두 4개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승인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특징이다.

부문별로는 교육, 위생사업 등 사회 분야 프로젝트 지원이 31억 달러로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으며, 국가 현대화 및 개혁 프로그램 지원 24억 달러, 제조업 등 생산 부문 17억 달러, 인프라 부문 7억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.

또한, 고채무빈국 채무탕감정책(HIPC Initiative)에 따라 볼리비아, 온두라스 등 중남미 4개국에 대해 총 6,6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.

IDB는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경제·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1959년 12월 설립된 지역개발 금융기관이며, 가맹국은 미국, 캐나다 등 총 46개국이다.

〈표〉 2001년도 IDB의 부문별 지원실적

단위 : 백만 달러

지 원 분 야	지 원 실 적	비 중 (%)
사회복지 부문	3,050	38.8
국가개혁 및 현대화사업	2,400	30.6
제조업 등 생산 부문	1,709	21.8
사회간접자본	694	8.8
합 계	7,853	100.0

【워싱턴주재원】